

5-4-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신명기 33:27-29

말씀제목: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그의 앞에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움의 방패가 되시며 그의 탁월함의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그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 아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으며,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신 33:2-3) 라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출 19:5)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주께서도 네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리라.”(신 14:2;26:18)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가운데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심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시 144:15;146:5)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서서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요 4:22)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 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엡 2:10-19)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대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게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엡 3:1-12)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들이 된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9-12)

그렇습니다!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땅의 왕국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그분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자들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